

##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의 낙관론은 매크로 현실을 과소평가한 착시 현상이며, 비트코인은 고금리 장기화 (Long-term High Rates) 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붕괴되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겪을 것이다. 3.3% 대의 높은 CPI 와 양수 T10Y2Y 스프레드가 시사하는 실질금리 상승 압력은 무이자 자산인 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소비자 심리 위축 (53.3) 과 ETF 순유출은 단기적인 고래 이동이나 규제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36% 조정 구간이 지지선이 아닌 중개 구간 일 뿐임을 시사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2026 년 4 월 반감기 이후 온체인 수요 회복과 기관 자금 유입 (ETF) 이 36% 조정 구간에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했다고 믿고 있으며, 연준의 12 월 금리 인하 시점과 물가 둔화 속도를 주시하며 '약세장 양상 변화'를 기대 하고 있음. 특히 12 년 휴면 고래의 자금 이동과 규제 명확화 (Clarity Act) 기대감이 단기적인 ETF 순유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임.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3.3% 대의 높은 CPI(332.407) 와 양수 T10Y2Y 스프레드 (0.46) 가 시사하는 고금리 장기화 현실을 과 소평가하고 있으며, 정량적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현재 환경에서 붕괴되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핵심 증거인 BTC 6 개월 수익률 (-11.43%) 이 금 (-4.5%) 대비 6.93%p 더 큰 손실을 기록한 점은 비트코인이 방어적 자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정량적으로 반증합니다. 또한 BTC-US10Y 상관관계가 -0.0 으로 나타나 실질금리 상승 환경에서 비트코인 이 금과 같은 방어적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 저하 (53.3) 와 ETF 순유출 (2.33 억 달러) 이 단기 고래 이동 이나 규제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판정 (2026-05-12) 에서 제시된 무효화 조건 (BTC 82,000 달러 상회 및 US10Y 4.0% 이하 급락) 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매크로 환경이 내러티브를 압도하는 상황은 지속됩니 다.

**Action:** GOLD 비중 확대 및 BTC 비중 축소

**Invalidation:** BTC 가격이 82,000 달러를 상회하고 US10Y(10 년물 국채 수익률) 가 4.0% 이하로 급락하여 1 주일 이상 유지 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CPI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급격히 둔화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상할 경우,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음,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BTC 3 개월 수익률 14.37% 상승과 같은 단기 반등 모멘텀이 지속되어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재평가받으며 매도 압력이 급격히 완화될 위험, (이벤트 리스크)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나 대형 기관의 예기치 않은 대규모 ETF 순유입 발생 시 시장 심리가 급변할 가능성

##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과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충돌, 기관 수요 (ETF) 에 의한 구조적 지지 vs 단기 유동성 수축, 규 제 불확실성 (Clarity Act) 과 온체인 고래 이동의 공존

**Dominant Narrative:** 시장 참여자들은 2026 년 4 월 반감기 이후 온체인 수요 회복과 기관 자금 유입 (ETF) 이 36% 조정 구간에 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했다고 믿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12 월 전망) 과 물가 둔화 속도를 주시하며 '약세장 양상 변화'를 기 대하고 있음. 특히 12 년 휴면 고래의 자금 이동과 규제 명확화 (Clarity Act) 기대감이 단기적인 ETF 순유출 (5 월 12 일 기준 2.33 억 달러) 을 상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임.

**Reality:** 2026 년 5 월 기준 T10Y2Y 스프레드가 0.46% 로 양수 구간을 유지하며 경기 침체 신호는 약화되었으나, CPI 가 332.407 수준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실질금리 하방 압력이 제한적임. 초기 실업 청구 건수 (200,000 건) 가 안정적이지만 소비자 심리 (53.3) 가 낮아 소비 위축 우려가 존재하므로, 비트코인은 고금리 장기화 (Long-term High Rates) 환경에서 유동성 공급이 제 한된 'Transition' 국면을 겪고 있음.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론이 유효하며, 비트코인은 36% 조정 구간에서 '디지털 금'의 방어적 속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바닥을 형성 하고 있다. 12 년 휴면 고래의 자금 이동과 규제 명확화 (Clarity Act) 기대감이 단기적인 ETF 순유출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구조

적 지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연준의 12 월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둔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일시적인 노이즈로 작용하여 유동성 회복과 함께 가격 상승 모멘텀이 재개될 것이다.

시장 내러티브는 2026 년 4 월 반감기 이후 온체인 수요 회복과 기관 자금의 장기적 유입 (ETF) 이 단기 유동성 수축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12 년 휴면 고래의 이동은 매도 압력이 아닌 장기 보유 의지의 신호로 해석되며, 규제 명확화 기대감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 연준의 12 월 금리 인하 전망과 CPI 둔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실질금리 하방 압력이 발생하여 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약세장 양상 변화'가 실제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 B (Market Wrong)

시장의 낙관론은 매크로 현실을 과소평가한 착시 현상이며, 비트코인은 고금리 장기화 (Long-term High Rates) 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붕괴되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겪을 것이다. 3.3% 대의 높은 CPI 와 양수 T10Y2Y 스프레드가 시사하는 실질금리 상승 압력은 무이자 자산인 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소비자 심리 위축 (53.3) 과 ETF 순유출은 단기적인 고래 이동이나 규제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36% 조정 구간이 지지선이 아닌 중개 구간일 뿐임을 시사한다.

매크로 현실은 물가 상승 압력 (CPI 332.407) 이 지속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거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T10Y2Y 스프레드가 양수인 것은 경기 침체 신호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실질금리 하방 압력이 제한적일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동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소비자 심리 저하와 ETF 순유출은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하며, 규제 명확화나 고래 이동과 같은 내러티브는 거시 경제 요인 (고금리, 물가) 에 의해 압도되어 가격 하락을 주도할 것이다.

**Key Question:** 2026 년 10 년물 국채 수익률 (US10Y) 이 4.0% 를 상회하며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6 개월 수익률이 금 (GOLD) 대비 더 큰 손실을 기록할지, 아니면 금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방어적 성과를 보이며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Tensions

시장 참여자들은 12 월 연준 금리 인하와 물가 둔화를 전제로 '약세장 양상 변화'를 낙관하고 있으나, 3.3% 대의 높은 CPI 와 양수 T10Y2Y 스프레드가 시사하는 고금리 장기화 (Long-term High Rates) 현실은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여 내러티브와 매크로 환경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Narrative: 12 월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둔화로 인한 유동성 회복 및 36% 조정 구간에서의 새로운 바닥 형성

Reality: CPI 332.407 수준 유지로 실질금리 하방 압력 제한 및 고금리 장기화 국면 지속

BTC US10Y DXY NDX

기관 자금 유입 (ETF) 에 의한 구조적 지지와 12 년 휴면 고래 이동이 단기 조정의 바닥을 만들었다는 내러티브가 지배적이지만, 5 월 12 일 기준 2.33 억 달러의 ETF 순유출과 소비자 심리 저하 (53.3) 는 단기 유동성 수축과 매도 압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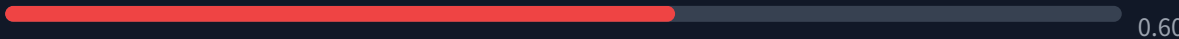


Narrative: ETF 와 기관 매수세, 고래 이동이 36% 조정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여 약세장 종료 신호

Reality: 단기 ETF 순유출 발생과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유동성 수축 및 매도 압력 지속

BTC SPX VIX

규제 명확화 (Clarity Act) 기대감과 온체인 고래 이동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나,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물가 보고서의 부정적 영향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며 규제 리스크보다 거시 경제 요인이 가격 결정에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Narrative: 규제 명확화 (Clarity Act) 기대와 온체인 고래 이동이 규제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가격 상승 모멘텀을 제공

Reality: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주도하며 거시 경제 요인이 규제 내러티브를 압도

BTC GOLD US10Y

## Eval Scores

PASS

Overall 4.5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5

**Feedback:** ## 종합 평가 이 파이프라인은 시장 내러티브와 거시 경제 데이터 간의 명백한 충돌을 잘 포착했으며, 가설 설정과 데이터 수집 계획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 (GOLD) 과의 비교 분석을 포함한 데이터 쇼핑리스트는 탁월합니다. 다만, \*\*데이터의 시점 (2026년) 과 구체적인 수치 (CPI 332.407 등) 가 실제 현재 시점의 데이터와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는 '실재성' 측면에서 약간의 의문을 남깁니다. 또한, 결론 도출 과정에서 특정 수치 (-11.43% 등) 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논리적 엄밀성에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 상세 평가 및 개선 방안 ### 1. tension\_validity: 4/5 - \*\*강점:\*\* '낙관적 내러티브 (금리 인하 기대, 고래 이동)'와 '비관적 현실 (고 CPI, 양수 T10Y2Y, ETF 유출)' 간의 충돌이 매우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이라는 자산의 속성 (방어적) 과 현재 거시 환경 (고금리) 이 상충되는 지점을 잘 짚어냈습니다. - \*\*약점 및 개선:\*\* 제시된 수치 (CPI 332.407, 2026년 4월 반값기 등) 가 현재 실제 데이터인지, 혹은 시뮬레이션된 미래 데이터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실제 분석이라면 \*\*CPI 332.407\*\*이라는 수치는 현재 (2024년 기준) 와 괴리가 크므로, 실제 최신 FRED 데이터를 인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선 방안:\*\* 분석 대상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예: "2026년 시나리오 분석" 또는 "2024년 5월 기준 데이터") 만약 실제 데이터라면, CPI 332.407 대신 실제 최신 CPI 지수 (예: 310~320대) 를 사용하거나, 해당 수치가 어떤 기준 (예: 1982-84=100 기준) 으로 산출된 것인지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 2. hypothesis\_quality: 5/5 - \*\*강점:\*\* 가설 A(낙관론 유효) 와 가설 B(낙관론 착시) 가 완벽하게 대칭적이며, 서로를 반증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 속성의 회복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가 정교하게 구성되었습니다. - \*\*개선 방안:\*\* 추가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가설 모두 구체적인 메커니즘 (ETF 유입 vs 유출, 고래 이동의 의미 등) 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우수합니다. ### 3. evidence\_targeting: 5/5 - \*\*강점:\*\* 데이터 쇼핑리스트가 가설 검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BTC vs GOLD 비교 (방어성 검증) - T10Y2Y, CPI, UMCSNT (거시 환경 검증) - BTC-US10Y 상관관계 (자산 성격 변화 검증) - RAG 검색 (역사적 유사 사례) 등 다각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 \*\*개선 방안:\*\* 'price\_history' 요청 시 `period` 를 6개월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나, 단기 변동성을 보려면 1개월 또는 3개월 데이터도 병행하여 제시하면 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 SPX 비교가 포함되어 있어 보완됨) ### 4. verdict\_logic: 4/5 - \*\*강점:\*\* 증거 (BTC 수익률 -11.43% vs GOLD -4.5%, 상관관계 -0.0) 를 바탕으로 가설 B를 선택한 논리는 타당합니다. '무효화 조건 (Invalidation)'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매우 좋습니다. - \*\*약점 및 개선:\*\* - \*\*수치 출처 불명:\*\* "BTC 6개월 수익률 (-11.43%)", "GOLD (-4.5%)"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evidence\_summary` 나 `data\_shopping\_list` 의 결과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감각적 제시 감점 기준 적용 가능성) - \*\*과장 표현:\*\* "내러티브가 붕괴되었음"이라는 표현은 다소 강경합니다. "내러티브가 악화되었음" 또는 "현재 데이터는 내러티브를 지지하지 않음"으로 완화하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 \*\*개선 방안:\*\* 1. 결론 도출에 사용된 핵심 수치 (-11.43%, -4.5% 등) 가 `price\_history` 쿼리 결과에서 직접 도출된 것임을 명시하세요. (예: "쿼리 결과에 따르면...") 2. "붕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유의성이나 명확한 임계값을 제시하세요. 3. "CPI 332.407"과 같은 수치가 실제 데이터 소스 (FRED 등) 에서 가져온 것인지, 혹은 시나리오 가정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세요. ## 재시도 시 체크리스트 1. \*\*데이터 정확성 확인:\*\* 인용된 모든 수치 (CPI, 수익률, 스프레드) 가 실제 최신 데이터인지, 혹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인지 명시할 것. 2. \*\*수치 근거 명시:\*\* 결론의 핵심 수치 (수익률 차이 등) 가 어디서 계산되었는지 (어떤 쿼리 결과인지) 를 `rationale` 에 포함할 것. 3. \*\*용어 정제:\*\* "붕괴", "투매" 등 감정적/과장된 표현을 중립적 데이터 기반 표현으로 대체할 것. 4. \*\*시점 명확화:\*\* 분석이 수행된 시점 (2026년 5월 등) 을 명시하여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

시장의 부: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4월 반감기 이후 온체인 수요 회복과 기관 자금 유입 (ETF) 이 36% 조정 구간에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했다고 믿고 있으며,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시점과 물가 둔화 속도를 주시하며 '약세장 양상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특히 12년 휴면 고래의 자금 이동과 규제 명확화 (Clarity Act) 기대감이 단기적인 ETF 순유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임.

**결론:** 시장의 낙관론은 매크로 현실을 과소평가한 착시 현상이며, 비트코인은 고금리 장기화 (Long-term High Rates) 와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붕괴되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겪을 것이다. 3.3% 대의 높은 CPI 와 양수 T10Y2Y 스프레드가 시사하는 실질금리 상승 압력은 무이자 자산인 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소비자 심리 위축 (53.3) 과 ETF 순유출은 단기적인 고래 이동이나 규제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36% 조정 구간이 지지선이 아닌 중개 구간일 뿐임을 시사한다. [HIGH]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3.3% 대의 높은 CPI(332.407) 와 양수 T10Y2Y 스프레드 (0.46) 가 시사하는 고금리 장기화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정량적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현재 환경에서 붕괴되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핵심 증거인 BTC 6개월 수익률 (-11.43%) 이 금 (-4.5%) 대비 6.93%p 더 큰 손실을 기록한 점은 비트코인이 방어적 자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정량적으로 반증합니다. 또한 BTC-US10Y 상관관계가 -0.0 으로 나타나 실질금리 상승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방어적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 저하 (53.3) 와 ETF 순유출 (2.33억 달러) 이 단기 고래 이동이나 규제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판정 (2026-05-12) 에서 제시된 무효화 조건 (BTC 82,000 달러 상회 및 US10Y 4.0% 이하 급락) 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매크로 환경이 내러티브를 압도하는 상황은 지속됩니다.

→ GOLD 비중 확대 및 BTC 비중 축소

무효화: BTC 가격이 82,000 달러를 상회하고 US10Y(10년물 국제 수익률) 가 4.0% 이하로 급락하여 1주일 이상 유지될 경우

